

'용인 8경'을 아시나요?



선유대 사계

경기도 용인에 가게 된다면 꼭 봐야 할 비경이 8개 있다. '단양 8경'이 있듯이 '용인 8경'이 있는 셈이다.

성산 일출 구성동, 포곡읍 마성리, 유림동 등에 걸쳐 있는 해발 471.5m의 석성산에서 감상하는 일출로, 용인 8경의 으뜸으로 꼽힌다. 석성산은 성산, 구성산, 보개산으로도 불리는데 영동고속도로 마성터널을 품고 있다. 용인을 붉게 물들이며 떠오르는 태양의 장엄한 모습은 그야말로 감탄을 자아낸다.

어비낙조 용인 8경 가운데 제2경으로 불린다. 처인구 이동면 어비리에 있는 송전저수지에서 해 질 무렵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경치다. 어비리(漁肥里)는 지형이 물고기의 날개 지느러미처럼 생겼다고 하여 어비촌이라 불렀다. 물리, 서리, 천리에서 흐르는 물이 어비촌 가운데로 흘러들자 1972년 제방을 쌓아 송전저수지를 만들었다. 이 저수지는 45번 국도를 따라 안성 쪽으로 가는 길에 있는데, 송전에서 묘봉리로 들어서는 언덕길에서 보는 낙조가 특히 장관이다.

곰등고개와 용담조망 칠봉산과 문수봉 사이의 고개로 곰등고개라고도 한다. 이 고개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황금들판 사이로 포근한 어머니의 품속 같은 용담저수지가 눈에 들어온다. 전형적인 한국의 고향 마을 풍경이다. 용인 백옥쌀이 생산되는 곡창지대이기도 하다. 곰등고개는 험한 지형 때문에 옛날부터 호랑이가 자주 출몰해 고개 밑에 범암굴, 호리같은 지명이 생길 정도였다.

광고산 설경 수지구 광고산(해발 582m)은 처인구 성산과 더불어 용인의 2대 명산이다. 용인시와 수원시의 경계를 이루는 광고산은 용인시 관내에는 수지 신봉동, 고기동, 동천동에 걸쳐 있다. 광고산의 주봉인 시루봉이 용인시에 속해 있는데 시루봉 정상에서 보면 수지 일원이 한눈에 들어온다. 광고산에 눈이 내린 절경을 일컫는 말이 '광고적설'이다. 죽전고개마루를 지나 대지고개에서 바라보는 광고산 설경은 설산(雪山)의 최고 진수라는 평을 듣는다.

선유대 사계 용인 8경 가운데 제5경으로 꼽히는 자연경관. 처인구 양지면 제일2리에 위치한 선유대는 조선 후기 풍류를 좋아하는 마을 선비들이 즐겨 찾던 곳이다. 정자와 연못 주변에서 아름다운 사계절의 자태를 만날 수 있다. 조선의 선비들이 이곳에 정자를 세우고 시조를 읊고 풍류를 즐겼다고 한다. 주변에 목재다리, 연못, 운동기구 등을 갖춘 소공원을 조성해 놓았다.

조비산 용인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으로는 조비산(해발 260m)이 꼽힌다. 이 산은 처인구 백암면 용천리, 석천리, 장평리에 접한 돌산이다. 새가 나는 형상이라 해서 조비(鳥飛)로 명명됐다고 한다. 황금들판 가운데 봉우리가 우뚝 솟아 돌을 이고 있는 듯한 특이한 형상을 하고 있다. 조비산에 얽힌 전설과 이야기도 많다. 다른 산들이 서울로 향하고 있는데 조비산은 머리를 남쪽으로 두고 있어 역적으로 불렸다는 속설도 있다. 조천사에서 조비산 정상으로 이어지는 등산로(1km)가 있다.

비파담 만풍 용인 8경의 제7경으로 처인구 모현면 갈천1리 파담마을 일대의 가을 풍광을 일컫는다. 비파담 만풍은 조선 현종, 숙종 때의 문신으로 영의정을 지낸 약천 남구만 선생이 파담마을에 낙향한 뒤 이 일대의 빼어난 풍광에 반해 정자를 짓고 비파를 연주하며 풍류를 즐겼다는 데서 연유한다. 울창한 숲과 백로들이 나는 모습이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듯하다.

가실벚꽃 처인구 포곡읍 가실리에 있는 호암미술관으로 가는 길이 가실벚꽃길이다. 미술관으로 이어지는 왕벚꽃나무 터널은 용인시민들이 사랑하는 산책로다. 봄철의 아름다운 벚꽃 풍광뿐만 아니라 사철 내내 다양한 색의 비경을 선사하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사람미술관인 호암미술관은 국보급을 포함한 한국미술품 1천200여 점을 소장하고 있다. ♣

사람중심 새로운 용인



난개발 없는
친환경 생태도시



편리한 출퇴근
스마트 교통도시



배움과 육아가
즐거운 도시



시민과 기업이
함께 하는
경제자족도시



모두에게 따뜻한
배려의 복지도시



여유롭고 활기찬
문화·예술·관광도시



공감과 소통의
신뢰도시

